

[9월 대비 S.D 모의평가 비연계 빈칸추론 해석&해설]

31. [정답률 온라인시행기준 70%]

해석: 만약 우리가 전적으로 이성적인 동물이었다면, 어쩌면 믿음을 일으키는 유일한 정신적 상태는 그것(믿음)에 대한 작은 증거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것에 가까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떤 철학자들은 우리는 꽤 이러한 패턴에 순응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만약 하나의 정신적 상태가 다른 것으로 이끄는 인과 관계가 다른 것의 이유가 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모든 의문 혹은 우리가 믿는 것이 불확실해져 어쩌할 바를 모르게 된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자동차가 살아있는 개라고 주장하는 누군가를 상상하면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깨달을 수 있다. 만약 그들이 개는 털과 발이 있고 그들의 자동차는 털과 발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자동차)가 살아있는 개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우리는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른다. 일단 이성의 바퀴가 심하게 미끄러지면, 의미의 모든 조직체는 도로를 이탈하게 된다.

- ① 무의식적 이성의 신비한 패턴을 단계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 ② 인지적으로 정의된 정보와 다른 것들을 구분할 수 있다
- ③ 우리의 일반적인 의문을 풀기 위해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짜 맞추어 볼 수 있다
- ④ 세계에서 온 자연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의 본능적 욕구를 받아들인다
- 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모든 의문 혹은 우리가 믿는 것이 불확실해져 어쩌할 바를 모르게 된다

정답: 5번

해설: 지문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첫 문장에서 우리가 이성적인 동물이라면, 우리의 정신적 믿음은 증거에 기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 문장에서는 이것에 우리가 근접하여, 정신적 상태에 대한 인과관계적 과정에 대한 이유가 일치하지 않으면 빈칸한다고 묻고 있습니다. 빈칸에서 묻는 것이 첫 문장의 반대되는 내용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정답을 고를 수는 없으며 뒤 예시를 통해 지문을 완벽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예시는 빈칸 내용을 가리키며, (We can get a feel for this argument if~) 그 내용은 누군가 자동차를 살아있는 개라고 주장하는데, 논리적 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라고 주장하면 우리는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과관계에 비약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됩니다. 맨 마지막 문장에서는 비유를 들고 있는데, 첫 문장 및 지문 전체내용과 연결시켜 생각해보면 이성적이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성적인 것의 전제는 믿음에 대한 증거의 성립여부라고 언급했으므로 믿음에 대한 증거 성립, 즉 인과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의미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예시부분까지 포함해, 우리의 믿음은 그에 따른 증거에 일치해야 이성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글이며, 이 글의 주제를 잡아냈으면 빈칸에는 이와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선택지 분석:

- ① 무의식적 이성의 신비한 패턴을 단계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이성이라는 말이 지문에 나왔지만, 지문과 관련 없는 내용의 선택지입니다.
- ② 인지적으로 정의된 정보와 다른 것들을 구분할 수 있다: 인지적으로 정의된 정보라는 내용 자체가 지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정보와 상관이 없습니다.
- ③ 우리의 일반적인 의문을 풀기 위해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짜 맞추어 수 있다: 주제와는 문맥상 부합하지만, 빈칸에 들어갈 내용과는 반대되는 선택지입니다.
- ④ 세계에서 온 자연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의 본능적 욕구를 받아들인다: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의 성립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rationality의 반대말로 본능이라고 생각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주하게 되면 본능을 인정한다는 말이니 빈칸에 들어갈 내용과는 반대되는 선택지가 됩니다. 혹은 본능이라는 말이 지문에 근거가 없다고 간주하여 오답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 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모든 의문 혹은 우리가 믿는 것이 불확실해져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정답 선택지입니다. at sea라는 숙어를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넓은 바다에 혼자 남겨진 상태’라고 생각해보면 결국 어찌할 바를 모른다,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휘:

reception-이해 approximate-가까워지다 apparatus: 장치, 조직체

at sea-어찌할 바를 모른다

PLUS:

어휘 apparatus의 10수능대비 6월 평가원 43번에 수록된 기출어휘입니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I am not talking here about some physical apparatus that we can put on and take off)

deal with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의 어휘입니다.

[to accept and control a difficult emotional situation so that you can start to live a normal life again despite it]

32. [정답률 온라인시행기준 31%]

해석: 인간의 삶이 실수의 일종이라는 것은 인간은 만족하기 어려운 욕구의 집합체이며, 그들의 욕구의 만족이라는 것은 단지 그가 지루함에게 사용되어 고통이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것이라는 단순한 관찰로 충분히 증명되었다. 지루함은 지루함이 존재의 공허함의 지각이라는 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존재는 그 자체 안에 있으면 무가치하다는 직접적인 증거이다. 만약 삶이 우리의 실제와 존재가 욕구를 위해 존립하는 그 욕구 속에서 그 자체 내에서 긍정적인 가치와 실제적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지루함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단지 존재 (그 자체)가 우리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킬 것이다. 현 상태로는,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목표로 노력할 때를 제외하고 존재에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이 경우(노력할 때와의) 차이와 어려움이 우리의 목표가 마치 우리를 만족시켜줄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 ① 우리는 그것(지루함)의 모호함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루함에 압도당한다
- ② 우리는 실질적으로 완전한 회의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 ③ 공허함의 지각은 궁극적 만족에 굴복한다
- ④ (노력할 때와의) 차이와 어려움이 우리의 목표를 (목표가) 마치 우리를 만족시켜줄 것처럼 만든다
- ⑤ 철학자들은 지루함과 존재의 무효성을 구분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추상적인 글이며, 구문 난이도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단순히 해석만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결국 주제는 하나다’라는 관점에서 지문을 독해하시길 바랍니다.

첫 문장의 경우는 해석하기에도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을 해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아내면 ‘man is a compound of needs which are hard to satisfy’의 이유는 ‘their satisfaction achieves nothing but a painless condition in which he is only given over to boredom’임을 지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지문에서는 인간이 채우기 어려운 욕구의 집합체인데, 그 이유는 만족을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그가 지루함에게 양도된(결국 지루함 속에 빠지다=지루해지다) 고통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통이 없다는 말이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는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문장의 경우 지루함(boredom)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루함이 삶을 무가치하기 만드는 이유는 지루하면 존재의 공허함을 지각, 즉 지루하다는 것이 그 지루한 대상이 결국 자신이 공허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If life, in the desire~’ 부분은 삶이 긍정적&실질적이면 지루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문 앞에서 우리는 존재 자체로만은 지루함에 도달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결국 우리의 삶은 긍정적이건 실질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지문 앞의 ‘existence is in itself valueless’, ‘emptiness of existence’와 문맥상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문두의 As things are이 if로 가정된 내용과 문맥상 의미가 반대됨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빈칸이 포함된 문장에서는 우리가 끊임

임없이 노력할 때만을 제외하고 존재에서 의미를 얻지 못한다 말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에 대해 빈칸이 묻고 있음을 독해해야 합니다.

지문 앞에서 인간은 만족을 할 수 없다고 말했고, 그 이유는 지루함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존재만 있는 것은 우리를 지루함에 빠지게 한다 할 수 있음을 지문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만족할 수 없어 지루함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고, 이에 가장 가까운 선택지는 5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정답이 되는 추가 근거는 선택지 분석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위 해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간: 만족할 수 없는 욕구의 존재
- 지루함: 인간이 욕구를 만족시키면 도달하게 됨. 지루함에 빠지는 순간 대상은 공허하게 됨.
- 노력하는 것: 존재를 존재 자체로만 있게 하지 않는 것. 즉 지루함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선택지 분석:

- ① 우리는 그것(지루함)의 모호함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루함에 압도당한다: 지루함이 지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만, 지루함에 압도당한다, 즉 지루해진다는 말은 빈칸에 들어갈 말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 ② 우리는 실질적으로 완전한 회의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회의주의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지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 ③ 공허함의 지각은 궁극적 만족에 굴복한다: 이 선지의 내용은 결국 우리가 만족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문 맨 앞에서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지문의 전제)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 ④ (노력할 때와의) 차이와 어려움이 우리의 목표를 (목표가) 마치 우리를 만족시켜줄 것처럼 만든다: 인간이 달성할 수 없는 욕망의 존재이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는 지루함에 빠지기 때문에 달성할 수 없는 욕망에 대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정답입니다. 또한, 빈칸의 distance&difficulties가 지문의 painless와 문맥적으로 반대됨을 알 수 있어 근거로서 1:1 대응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⑤ 철학자들은 지루함과 존재의 무효성을 구분할 수 있다: 철학자에 대해 한 단어만 언급되어 있지만, 이들이 지루함과 존재의 무효성을 구분할 수 있다는 내용은 지문에 없습니다. 지문에 근거가 없는 선택지입니다.

어휘:

give over-사용되다 sensation-지각 as things are-현 상태로는 give in-굴복하다